

7월 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2019-7-20

요한의 복음. 20,1-2.11-18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

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

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불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봐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목상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중요한 성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마치 사도 한 명을 더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기념일에서 축일로 지내도록 승격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녀에 관해서 몇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루카는 그녀가 악명 높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발 앞으로 다가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렸던 순간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저지른 수많은 죄들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순수성을 가져와 주심으로써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대단한 죄인들은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들

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들은 여러분이 성화되어 지는데 장애물이 아닙니다.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 마태오, 성 아우구스티노, 성 디마스('선한' 도둑으로 알려진 성인), 성 토마스 베켓....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에게 죄들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죄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죄들을 지었는지, 얼마나 더럽고 문드러지는 우리의 미천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한 죄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되어 진다면, 그 죄들은 성화라는 나무를 위한 가장 좋은 거름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물과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의 성화 나무는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그녀의 스승님을 사랑했나요! 그녀는 뉘우침으로 가득차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의 발에 흘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 후에 무덤 입구에서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일주 전, 그녀는 피로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발에 가장 좋은 그녀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성 금요일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때났을 때, 그녀는 우리의 성모님 옆에서 예수님 발 앞에 다시 한 번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좌들을 쉽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깊은 사랑을 쉽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제가 언제나 당신의 아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소서. 또한 마리아 막달레나가 뉘우치고 사랑한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너 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예수

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 대영 요셉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7weol-22il-seongnyeo-maria-magdalrena-cugil/> (2026-1-28)